

“日 오염수 IAEA 보고서 대통령실이 대응할 일 아니다”

대통령실 “원자력안전위 오늘 공식 입장 낼 것” 그로서 IAEA 사무총장, 7~9일 한국 찾아 면담 “오염수 방류 과학적·기술적 검토 마무리 단계”

4일 일본에서 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밝힌 라파엘 그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그로서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개된 것으로, 그의 방한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가 나온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대응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안위 등은 오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IAEA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이에 앞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그로서 사무총장은 IAEA 일본 오염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방일 일정 직후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로서 사무총장은 이날부터 7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전망이다.
박 차장은 “그로서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서는 유국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그로서 사무총장과 원안위의 면담 주제에 대해선 “두 규제기관인 IAEA와 원안위가 방류 시설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교부 장관과는 IAEA와 한국이 어떤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나갈지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그로서 사무총장 방한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토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다.

박 차장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류 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간 작성해온 대응 매뉴얼에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탈고한



IAEA 최종 보고서 전달 라파엘 그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후,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종합 검토 보고서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가들이 2021년부터 진행해 온 방류 점검 내용, IAEA의 검토보고서 내용, 후쿠시마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 별도 분석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 측 분석은 끝난 단계기 때문에 IAEA 보고서에 따라 우리 보고서 방향이 바뀔 상황은 아니다”라며 “발표가

어느 날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다만 오염수 방류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또 한국 해역에 설치된 해수 방사능 감시기에 고장이 빈번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라며 “정기 점검 강화 등으로 고장 빈도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일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빗물·지하수 유입 등으로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발생	2013년 3월 30일 오염수 정화처리 장치 '다핵종제거설비(ALPS) 시운전 개시	2016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회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단 기간에 가장 저량' 의견 표명
2020년 2월 10일 전문가 소위원회, 최종보고서 통해 해양방류가 한층 현실적인 안이라고 설명	3월 24일 도쿄전력, 오염수 농도 희석 방류 등 기술적 검토안 공표	4월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소위원회 최종보고서 내용 지지 표명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 관계각료 회의서 해양방류 결정
2022년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해양방류 계획 정식 인가	8월 4일 해양방류 해저터널 공사 시작	2023년 6월 26일 해양방류 해저터널 완공	7월 4일 IAEA, 종합보고서 발표.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

자료: 도쿄전력

尹 “독과점·보조금 나눠먹기 낱알이 꺾어내야”

“이권 카르텔은 국민 약탈...민생 법안, 국회서 발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익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알이 꺾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이

낱 지목된 카르텔 실체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게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또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경제기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 기틀이 잡히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물가와 실업률, 무역수지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부처에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멈추지 않는 추미애의 입

‘文이 해임’ 주장 이어 이낙연 저격 “세계 퇴장하라 하면 안됐다” 당내선 “원로가 분란 앞장...자기장사·尹대통령 만든 일등공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장관직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3일 밤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상황에 대해 “이낙연(전)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를 앞둔 2021년 초 추 전 장관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간 갈등이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하자 당시 집권 여당 대표였던 전 대표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장관직 사퇴를 언급하지는 않았고, 문 전 대통령

이 “당이 사퇴를 요구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에 이어 이전 대표를 공격하자 당내에서는 원로급 인사 분란에 앞장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낙(친이낙연)계인 신경민 전 의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추 전 장관이 경질되는 데 이전 대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속 이러는 건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승천 의원은 4일 BBS라디오 ‘정영신의 아침저녁’에 나와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서 자기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싫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추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일등공신”이라며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책임을 통감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